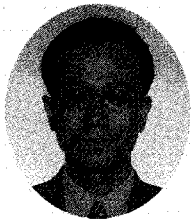


# 김 할머니 후계자를 찾습니다



| 김상우 / YTN 사회부 차장

올해로 헌혈해온지 꼭 30년... 내년부터

헌혈을 할 수 없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

“어디 내 대를 이을 여성 없나요?”

‘헌혈 할머니’를 아십니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인 64살의 김양자 씨는 헌혈 할머니로 통합니다. 2달에 한번씩 헌혈을 해 온 지 근 30년째. 김 할머니는 이달 초 적십자사 헌혈 캠페인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헌혈대에 올랐습니다. 헌혈대에 오른 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헌혈을 하십니까? “내 작은 피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 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헌혈을 할 수 없어 아쉽네요, 누가 내 대를 이을 여성 없나요?,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헌혈 관련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면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펜을 든 이유 바로 ‘헌혈 할머니’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우리 나라 전체 헌혈자 가운데 혹시 김 할머니같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부모로부터 온 몸을 물려받아 이를 함부로 다루면 안된다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런지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혈액 부족국가이자 혈액

관련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현혈 수준은 정말 턱 없이 낮습니다. 특히 여성이 더 그렇습니다. 국내 여성 현혈자 수는 전체 현혈자의 2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41%, 호주 53%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여성 현혈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54만명이던 여성 현혈자 수는 2천년 52만명, 2천1년 50만명, 지난해는 48만명으로 매년 2만명씩 줄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적십자사 현혈본부가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혈 자원 여성 가운데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빈혈로 현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현혈 지원 여성 71만명 가운데 32%인 23만명이 혈색 속 수치가 낮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적격 판정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27%였던게 5% 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남성은 10%대로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면 잔소리인 현혈 참여가 남자에 비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여성 현혈자 연령층이 좁아 대부분 학생 등 젊은층입니다. 선진국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지난 9·11 테러 때 미국에서는 성과 연령을 떠나 수많은 여성이 현혈대에 오르는 것을 TV를 통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제가 있는 언론사에도 남자 기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여자 기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밤을 꼬박 새야 되는 사회부 야근이나 남자들도 슬그머니 꿈무늬를 빼는 폭탄주 세례도 피하지 않고 거뜬히 해냅니다. 이런 당찬 여자 기자들의 보도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미모까지 첨가돼 남자 기자들 보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설득력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사건 사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굵직굵직한 검찰수사, 금남의 집처럼 여겨졌던 여의도 정가 등에는 이제 여자들은 보조역이 아니라 주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여성 존재에 대한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남성들 보다 우리가 낫다”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상징표로 기자직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이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세대 커리어우먼은 여성운동에 직접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간 평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성운동가나 다름없습니다. 이들 신세대 운동가들은 특히 최근의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보듯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쟁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 후배나 동료, 선배 여자자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제 -몸으로 나서든 안 나서든- 여성운동의 선두에 서시는 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모든 여성분들께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년 중 단 한 번만이라도 김 할머니의 후계자가 되주십시오.

남녀가 차별없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 현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의 현혈 비율이 남녀간 인구 비례에 버금가게 선진국처럼 절반쯤 이를 때 우리 사회도 말만 앞세우는 남녀평등 양성평등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혈, 그것은 분명 작지만 귀중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피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양성평등 구현 현혈이 첫 걸음입니다. PPFK